

생명윤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김 영 주

대진대학교

〈요 약〉

생명윤리는 생명이 존속하고 생명과학과 의학기술의 발전이 계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논쟁거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2005년 발생한 황우석 사태는 생명윤리논쟁과 관련해서 전 국민적 관심사를 환기시켜 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수명연장과 건강증진 등 의학적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그 이면에 안락사, 생명복제, 유전자 검사 등의 생명의 존엄성 침해라는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개별 생명윤리의 문제에서 해당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음’과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생명윤리교육은 각각의 이슈들에 대한 찬반논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생명에 대한 이해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성찰 없이 이루어지는 찬반논쟁은 단순히 흥미위주의 것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신앙생활이 생명윤리의식수준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를 전제로 생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생명의 존엄성에 기초한 생명윤리교육의 필요성을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생명윤리의 문제는 종교심에 바탕을 둔 인성문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타 종단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가치를 우선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생명이해를 바탕으로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생명윤리를 살펴볼 것이며, 생명윤리는 실천윤리에 착안하여 일상생활의 실천윤리인 훈회를 통해 종교심에 근거한 인성함양의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생명윤리, 해원상생, 보은상생, 훈회

* 이 논문은 2014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가 있습니다. 숨은 쉬지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첨단 의료 장비로 환자의 생명은 연장할 수 있지만, 환자는 눈을 뜨거나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아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회복은 불가능하니 고통스럽게 억지로 생명을 이어갈 바에야 일찍 죽게 할까요? 아니면 살아 있는 생명을 일부러 죽이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 없으니 병원의 도움으로 계속 살릴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이상은 장성익의 『생명윤리논쟁』¹⁾서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2005년에 발생한 황우석 사태를 매개로 활발한 공적 담론의 형태를 띠게 되었던 생명윤리는 이제 초등학생들의 토론의 장에 주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생명윤리는 학자, 전문 직업인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인에게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윤리는 이제 일반시민의 교양이자 관심사가 된 것이다.²⁾ 그러나 활발한 담론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의견을 발견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오히려 더 많은 논란만 증폭시키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 일반인의 경우에도 수업을 통해 생명윤리를 접하는 경우와 가족 중에 개개의 생명윤리문제를 겪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 표명의 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부족과 그에 따른 생명경시풍조에 기인하는 듯하다.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생명연장 기술의 발전, 난치병 치료 등 건강증진과 수명연장이라는 의학적 성과를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 안락사, 생명복제, 유전자검사 등의 생명의 존엄성 침해라는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생명체가 존속하는 한, 그리고 생명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이 계속되는 한, 생명윤리에 관한 논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이 지속되는 한, 또 다른 생명윤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윤리를 단순히 일회일비하는 찬반 논쟁으로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성찰과 실천윤리로의 관심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본 논문은 생명윤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순진리회의 생명윤리교육을 논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생명윤리논쟁과 관련하여 종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해서는 타 종단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므로 생명윤리문제와 관련된 각각의 논쟁들을 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보다는 생명에 대한 인식문제가 결국은 인성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올바른 인성을 배양하기 위한 종교심 함양의 문제에 집중할

1) 장성익 글/ 박종호 그림, 『생명윤리논쟁』(서울: 풀빛, 2014), 4쪽.

2) 권복규·김현철, 『생명윤리와 법』(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8쪽.

것이다.

생명윤리의 논쟁은 개별 사안에 대한 윤리적으로 ‘옳음’과 ‘그름’의 논쟁이다. 옳음은 찬성의 입장이고 그름은 반대의 입장이다. 여기서 필자는 ‘옳음’이 다의적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옳음’에는 ‘당연히 해야하는’(should) 개념 뿐만 아니라 ‘허용가능한’의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리적 허용가능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것이며, 윤리적 허용가능성의 문제는 자칫 독선적 생명윤리관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종교심에 바탕을 둔 생명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순진리회의 생명윤리교육을 논함에 있어, 생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며, 대순진리회에서 제시하는 생명윤리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것이다. 생명윤리는 실천을 전제한다. 실천이 없는 윤리는 이미 윤리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순진리회의 실천덕목으로서의 훈화(訓誨)를 통하여 생명윤리의 직접적인 실천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II. 생명윤리의 정체성과 윤리적 허용가능성

1. 생명윤리인가. 생명윤리학인가.

“생명윤리는 의학·생물학·유전공학 등 전문적인 과학기술적 지식과 더불어 철학·윤리학·종교학 등 폭넓은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방대하고도 구체적인 윤리 문제들에 대해 건전한 가치판단을 내리도록 안내하는 복합적인 학문분야이다.”³⁾와 “생명의료윤리란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환경문제, 인구문제 등 생명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경우에 있어 ‘생명윤리’라는 용어를 통해 ‘생명윤리’와 ‘생명윤리학’⁵⁾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윤리와 생명윤리학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생명윤리에서 ‘윤리’와 ‘윤리학’을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영어의 ‘ethics’가 ‘윤리’와 ‘윤리학’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윤리’와 ‘윤리학’은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바람직한 규범이나 규칙의 체계를 의미하는 ‘윤리’와

3) 양제섭·구미정,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생명윤리교육:대구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윤리』제10권 제1호(서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9), 6쪽.

4) 조미경, 『간호과와 비간호과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비교』, 『디지털정책연구』제11권 제4호(서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312쪽.

5) 생명윤리학에 대한 학제적 성격이 부각되기 이전에는 생명윤리학은 응용윤리학으로 분류하여 철학의 한 분과로 이해되었던 적도 있다. 생명윤리학을 응용윤리학으로 분류한 것은 규범윤리학의 원리를 생명윤리의 현상이나 논쟁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듯하다.

규범적 문제에 대한 학문적 탐구영역인 ‘윤리학’은 엄연히 구별된다. ‘윤리’는 규범이나 규칙들의 체계로서 실천적 영역을 지칭하는 것인 반면, ‘윤리학’은 바로 이런 실천적 영역에 대한 문제들을 학문적 대상으로 하는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다.⁶⁾ 윤리학이 윤리의 문제들을 학문의 대상으로 하여 선이란 무엇인지, ‘옳은’과 ‘그른’과 같은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루는 철학의 한 분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규칙이나 규범이라는 실천적인 영역을 지칭하는 윤리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종교라는 개별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생명윤리는 규범의 실천적 측면이 부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윤리의 실천’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철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 의학, 생명과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의 학제적 학문인 생명윤리학을 생명윤리와 구분없이 사용한다면 생명윤리의 실천적 측면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생명윤리를 살펴봄에 있어 윤리 본연의 실천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생명윤리에서 생명과 윤리는 어떻게 이해되고, 생명윤리는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하는가?

먼저, 생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살아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나타나는 현상들의 전체를 ‘생명현상’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여전히 움직인다, 숨을 쉬고 있다, 심장이 뼉다 등의 서술들로 생명현상의 부분적 특징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생명현상 전체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생명은 신비롭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생명이 신비롭다는 것은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말이다.⁷⁾ 그래서 정진홍은 “생명은 ‘모든 것’을 일컫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고 자명한 생명윤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개념적 모호성이나 부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의 맥락에서 보면 자연도 인위도 가릴 것 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현상으로 지칭된다. 하늘도 땅도, 바위도 초목도, 사람도 짐승도, 만들어진 물건도,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개념도, 희망이나 절망이라는 정서도 그것 자체로 생명현상으로 묘사된다.”⁸⁾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은 정의내리기 보다는 생명의 의미해석을 통한 가치모색으로 중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음으로, 윤리란 그리스어 ‘ethos’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회규범’을 의미하며,⁹⁾ ‘가치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규범’을 일컫는다.¹⁰⁾ 그러므로 윤리는 구체적인 행위로

6) 최경석,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다윈주의 사회에서 학제적 생명윤리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미래』, 『법학논집』 제17권 제1호(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45쪽.

7) 김대균, 『생명윤리교육에서 내러티브 활용』, 『윤리교육연구』 제27집(서울: 한국윤리교육학회, 2012), 35쪽.

8) 정진홍, 『생명과 종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3집(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10쪽.

9) Louis P. Pojman & James Fieser, *Ethics : Discovering Right and Wrong*, 박찬구, 류지현, 조현아, 김상돈, 『윤리학:옳고 그름의 발견』(서울: 울력, 2010), 22쪽.

10) 정진홍, 위의 글, 9쪽.

연결되어져야 하며,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윤리는 그 자체가 윤리적이지 못한 것이 된다. 윤리는 관념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살든지 누구나 옳은 행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성숙한 인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간다. 윤리적 삶은 인간의 삶 속에서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생명’과 ‘윤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윤리’를 살펴보면, 생명윤리는 우선 윤리적 체계를 의미한다. 누구나 지켜야 하는 윤리적 규범체계로서 이해된 생명윤리는 동물이나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전문적 윤리를 형성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최소한 생명을 대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윤리적 규범을 전달한다.¹¹⁾ 따라서 생명윤리는 생명에 대한 인식을 의미와 가치로 다듬고, 이를 현실적인 삶 속에서 실천적인 규범으로 만들어 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생명윤리는 생명을 다루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는 윤리라고 할 수 없다.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생명을 행위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생명을 아끼는 일이고, 상처 나거나 병들지 않게 하는 일이며, 죽지 않고 여전히 생명으로 지탱하게 하는 일이며,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이다. 한 마디로 말해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 생명윤리이다.¹²⁾ 그런 의미에서 생명윤리는 전문 직업인만을 위한 윤리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위한 윤리로써, 생명에 대한 인식과 생명을 바라보는 자세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 생명윤리에서의 ‘윤리적 옳음’과 ‘윤리적 허용가능성’

오늘날 생명과학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달은 태아의 감별, 인간생명의 연장, 각종 질병의 치료, 고통의 극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활발한 담론의 장이 마련되었지만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일치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일반시민들에게 윤리적 상대주의의 시각을 형성시켜 윤리적 정감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라는 왜곡된 정서를 심어주기도 한다. 윤리적 상대주의가 각각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또는 그렇지 않은 바와 전혀 무관하게 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¹³⁾임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한 결과이다. 한쪽이 옳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다른 쪽은 그르다는 사실 또한 밝혀진다. 그러나 이 때의 그름은 결코 사악함은 아니며 단지 불일치의 결과일 뿐¹⁴⁾임에도

11) 최경석, 『생명윤리와 철학 : 철학적 대립과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한 철학적 과제』, 『생명윤리』제14권 제2호(서울: 한국생명윤리학회, 2013), 16쪽.

12) 정진홍, 앞의 글, 9-10쪽.

13) Robert L. Arrington, *Western Ethics*, 김성호 역, 『서양윤리학사』(서울: 서광사, 2007), 55-56쪽.

14) Robert L. Arrington, 위의 책, 468쪽.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당하다고 간주한다.

여기서 우리는 ‘옳음’이라는 용어가 다의적임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때로는(“바로 그 옳은 행위the right act”에서처럼)“의무적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일반적으로 옳은 행위a right act” 혹은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모두 옳다”에서와 같이)“허용 가능한”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¹⁵⁾ 생명윤리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이 윤리학의 주된 관심사였던 “해야한다”(should)와 “하지 않아야 한다”(should not)의 구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윤리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그르지 않은 행위로서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¹⁶⁾ 그런 의미에서 생명윤리는 ‘윤리적 허용가능성’의 측면에서 ‘윤리적 옳음’의 문제를 논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안락사를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가?’의 문제로 현재 논의되는 생명윤리의 문제들이 각각의 행위를 ‘해야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행위를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가?’가 논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윤리논쟁에서 발생하는 의견대립은 ‘윤리적으로 그름’의 관점과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함’의 관점간의 대립이 되는 것이다.

대립이라는 것은 ‘확실한 무엇’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윤리적으로 그름’과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함’의 대립은 어느 한 쪽을 납득시킬 만한 논증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모든 가치 체계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참된 가치 체계는 나의 가치 체계 - 즉 내가 속한 사회의 가치 체계이며 상대에게 있어 참된 가치 체계는 상대가 속한 사회의 가치 체계일 뿐이다.¹⁷⁾ 결국 ‘윤리적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그르다’는 판단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이것이 사회구성원 전원이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윤리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에서의 주장을 마치 윤리적 참이라 인식하여 해당 행위나 비슷한 행위를 강조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에게 있어 참된 도덕은 나와 나의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도덕적 신념들이며 상대에게 있어 참된 도덕은 상대와 상대의 동료들이 받아들이는 도덕적 신념들이다.¹⁸⁾ 각각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또는 그렇지 않은 바와 전혀 무관하게 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된 가치 체계나 도덕이며 다른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또는 어떤 것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15) Louis P. Pojman & James Fieser, 앞의 책, 33쪽.

16) 최경석, 『생명윤리에서 윤리적 허용가능성 담론과 법제화』, 『법철학연구』제15권 제1호(서울: 한국법철학회, 2012), 108쪽.

17) Robert L. Arrington, 앞의 책, 56쪽.

18) 위의 책, 55-56쪽.

구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무엇에 호소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윤리적 허용가능성과 연관해서 제기될 질문들이다.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 ‘윤리적 허용가능성’ 자체가 딜레마이며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 또한 반드시 제기되는 문제이다. 윤리적 허용가능성의 문제는 자칫 독선적 생명윤리관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이다. 매 순간 상황에 따라 갈등한다. 생명윤리의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개개의 생명윤리문제에서 윤리적 가치관이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말해준다.¹⁹⁾ 이는 윤리적 허용가능성을 포함한 생명윤리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생명윤리의식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²⁰⁾와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룹에서 생명윤리의식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²¹⁾는 종교가 생명윤리교육을 이끌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진 그룹에서 생명윤리의식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²²⁾는 결국 종교에서의 생명윤리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Ⅲ. 대순진리회의 생명윤리

1. 대순진리회의 생명이해

생명윤리는 생명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종교는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엄성을 근간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산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면, 생명이해

19) 권윤희,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제23권 제2호(서울: 한국간호보건학회, 2009), 267쪽; 김인순, 앞의 글, 8쪽; 유명숙, 손기철,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및 도덕 판단력에 관한 간호윤리교육의 효과」, 『생명윤리』제12권 제2호(서울: 한국생명윤리학회, 2011), 66쪽; 전현숙, 「간호대학생과 비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기본간호학회지』제18권 제3호(서울: 한국간호과학회 기본간호학회, 2011), 407쪽; 정하윤, 정귀임, 「간호대학 신입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학회지』제6권 제4호(서울: 보건의료산업학회, 2012), 42쪽; 조미경, 「간호과와 비간호과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비교」, 『디지털정책연구』제11권 제4호(서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314쪽.

20) 권윤희, 위의 글, 267-268쪽; 김인순, 위의 글, 7쪽; 유명숙·손기철, 위의 글, 70쪽; 전현숙, 위의 글, 405쪽; 정하윤·정귀임, 위의 글, 44쪽; 조미경, 위의 글, 315쪽.

21) 권윤희, 앞의 글, 266쪽; 김인순, 앞의 글, 8쪽; 전현숙, 앞의 글, 405쪽; 정하윤, 앞의 글, 43쪽.

22) 권윤희, 위의 글, 267쪽; 정하윤, 위의 글, 42쪽; 조미경, 앞의 글, 317쪽.

와 관련해서 4가지의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다. 인신강세(人身降世), 천지생인(天地生人), 조상선령신, 신명이 그것이다.

인신강세와 관련하여 증산은 구천상제의 현현으로 믿어진다.

모친은 권(權)씨이며 성함은 양덕(良德)이니 이평면(梨坪面) 서상리(西山里)에 근친가서 계시던 어느날 꿈에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 불덩이가 몸을 덮으면서 천지가 밝아지는도다. 그 뒤에 태기가 있더니 열 석달만에 상제(上帝)께서 탄강하셨도다.(『전경』, 행록 1장 9절)²³⁾

상제께서 탄강하실 때에, 유달리 밝아지는 산실(産室)에 하늘로부터 두 선녀가 내려와서 아기 상제를 모시니 방안은 이상한 향기로 가득 차고 밝은 기운이 온 집을 둘러싸고 하늘에 뻗쳐 있었다.(행록1-10)

종교는 유일한 생명 이전의 초자연적 초월적 존재로부터 생명의 기원을 전제로 하며,²⁴⁾ 보편적으로 인류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그러한 실재는 각각의 문화적 맥락에서 특정한 현현(顯現)으로 알려진다.²⁵⁾ 그런 의미에서 증산이 잉태될 때의 이야기와 탄강 설화는 신앙적으로 신현(神現)하는 상징성²⁶⁾을 통해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성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태아의 형성은 경천동지할 경사로써 하늘과 땅이 축복해주는 복된 현상이며, 생명의 시작은 우주적 차원의 프로그램 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²⁷⁾ 이와 함께 ‘천지가 사람을 낳고’(天地生人)’(교법3-47)라는 표현을 통해 인간을 천지의 은혜로 태어난 존재로 묘사한다. 생(生)은 천지의 큰 덕을 의미하는 바,²⁸⁾ 이때의 천지는 각각 음과 양을 대표하는 것으로 천지의 덕을 합한 대덕의 결과가 생²⁹⁾이라는 것을 통해 천지는 모든 만물을 낳는 덕을 지닌 가치론적 실재로써 인간 또한 천지의 은혜로 태어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천지생인’ 즉, ‘천지가 사람을 낳고’라는 표현에는 인간이 태어남에 있어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상징한다. 한 사람이 나기 위해서는 부모를 비롯한 윗대의 조상들이 필요하며 조상들이 생육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부터 의식주의 모든 것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천지가 사람을 낳았다는 표현은 즉금에의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금에서의 탄생을 위해 존재한 조상들과 자연물에게로 천지라

23)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4). 『전경』의 인용은 ‘편·장·절’순으로 명기하며, ‘행록 1장 1절’은 ‘행록1-1’의 형식으로 명기한다.

24) 조웅대, 『한국 신종교의 생명문화』, 『신종교연구』25집(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1), 112쪽.

25) Malory Nye, *Religion: the basics*, 유기쁨, 『문화로 본 종교학』(서울: 논형, 2013), 161쪽.

26) 윤재근, 『한국 신종교 개창자의 탄생설화와 종교문화』, 『종교교육연구』3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쪽.

27) 조웅대, 위의 글, 120쪽.

28) 『易經』, 繫辭傳 下, 天地之大德曰生.

29) 『易經』, 繫辭傳 下, 乾陽物也 坤陰物也 陰陽合德 而剛柔有體.

는 개념이 소급하여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는 신적 요소도 포함되는 바, 증산은 생명탄생과 관련해서 ‘조상선령신’과의 관계설정을 통한 독특한 생명관을 보여주고 있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려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교법2-36)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의 영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생명의 탄생이 조상신과의 관계성에 있음을 통해 신명적 교감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들이 조상에 대해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일 단면이 여기에 있는 듯도 하다. ‘육십년 동안 공을 들여 어렵게 태어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 끌려고 할 때 쓰여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일컬으며, 하늘, 땅, 바위, 초목, 사람, 짐승, 만들어진 물건 등 자연과 인위를 가릴 것 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현상으로 지칭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대순진리회의 생명관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는 신명(神, 神明)의 개념에 주목한다.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교법3-2)

증산은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으니’라는 표현과 ‘흙바른 벽’이라는 표현을 통해 흔히 우리가 생명체라고 이야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생물에도 자기 존립을 가능케 하는 신적 존재가 실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풀잎’과 무생물인 ‘흙 바른 벽’마저 신명이 깃들어 있음을 통해 인간이 완전한 생명체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내재된 생명성인 신명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³⁰⁾

신명에 대한 모심과 공경의 의미는 그 자체로써 인간존재의 차원적 승화로 이어지며, 한국인의 전통적인 마음이라 할 정성, 즉 지성스러움의 세계로 인간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곧, 살아있는 인간은 보이지 않는 신명계의 존재들에 대해 모심과 살림의 정성스러움을 통하여 각기 신명의 해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며, 다시금 살아있는 인간

30) 김 송환이 사후 일을 여쭙어 물으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하셨도다.(교법1-50)

들도 자신의 신명이 있음으로 하여, 이들끼리의 관계성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아 상호 간에 상생의 세계로 승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다.³¹⁾ 이상에서 논의된 생명관을 정리해보면, 생명은 신성한 것이며, 천지만물 모두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생명이 깃들여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외재된 신(조상선령신)에 의해 탄생된 인간에게 내재적인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독특한 시각임에 틀림이 없는 듯하다.

2. 해원상생 · 보은상생의 생명윤리

대순진리회의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한 생명윤리는 상생의 생명윤리이다. 새롭게 건설되는 후천의 지배원리로서 선천의 모순과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새로운 이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생은 후천의 모든 관계성을 규정하는 용어로서 그 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

상생이념의 출현배경이 된 선천은 ‘상극의 이치’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대립과 갈등이 누적된 세상이다.³²⁾ 상극은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켰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원한’의 발생이다. 그래서 증산은 “인간을 과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공사3-4)라는 언설을 통해 원한이 누적된 선천의 한계를 직시하고, 선천을 과멸지경으로 이끌었던 원인으로서의 ‘원’을 해소하기 위한 해원공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원’은 상극의 선천세상에서 상생의 후천세상으로 가기 위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상생이라는 것은 해원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순지침』에 “해원은 척(慼)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므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이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³³⁾라고 하여 해원과 상생의 연계성을 명시하고 있다. 해원 없는 상생은 있을 수 없고 상생 없는 해원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원이념은 상생을 통해 지향점을 가지게 된다.

지나온 상극의 역사는 약육강식의 역사였다. 자신의 이기적 욕심만을 채우고자 타인의 손해나 희생은 고려하지 않았다. 힘없는 자들은 권력자들에게 짓밟히며 생명을 잃어갔으며, 자연의 수많은 생명은 인간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져갔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생명윤리가 ‘있는 자’와 ‘가진 자’ 그리고 ‘자연에 군림하는 자’를 위한 생명윤리였다면, 해원은 짓밟히고 짓밟는 것이 아닌 서로 도와 나아가는 상생의 존재로, 자연을 파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같이 호흡하는 상생의 존재로 볼 수 있는 시각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써 존중되어야 하며, 이들 생명과 함께 하

31) 민영현, 『한국 근세민중종교사상에서의 생명 이해와 선(仙)』, 『한국정신과학학회 제28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서울: 한국정신과학학회, 2008), 80쪽.

32)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공사1-3)

33)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27쪽.

고자 하는 자세가 해원상생의 생명윤리인 것이다.

상생이란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다.³⁴⁾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을 세워주며, 자신이 도달하고자 함에 남을 도달케 하는 것으로,³⁵⁾ 남이 잘 되는 것이 나 또한 잘 되는 것이라는 원리가 내재해 있다. 그 동안 수직관계로 있던 인간관계, 인간과 다른 자연물들과의 관계를 수평관계로의 재정립을 통해 원을 푸는 해원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져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상생인 것이다.

상생은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하며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所願人道 願君不君 願父不父 願師不師 有君無臣其君何立 有父無子其父何立 有師無學其師何立 大
大細細天地鬼神垂察(공사3-40)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가치인정 또한 반드시 요청된다. “임금이 있으나 신하가 없으면 그 임금이 어디에 설 수 있으며, 부모만 있고 자식이 없으면 그 부모가 어디에 설 수 있으며, 스승이 있으나 배우자가 없으면 그 스승이 어디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증산의 언설을 통해 군신, 부자, 사제의 명칭은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서로에 대한 절실한 필요의 요청이 서로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있게 해준 신하들에 대해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며,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스승은 스승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하는 신하되게 해준 임금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제자는 스승에게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남을 잘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기 도리의 실천에는 ‘보은’(報恩)의 원리가 내재한다. ‘보은’은 은의(恩義)에 보답하는 행위로 상생의 실천 원리라 할 수 있다. 보은의 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은혜에 무감각한 세태를 반영하는 듯하다.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행록5-38)

증산은 천하가 병든 이유를 부모·임금·스승의 은혜를 잊음으로 인한 충·효·열의 도가 사라져 버린 데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보은의 도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천하가 병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의를 알고 그 은의에 보은하여야 하며,³⁶⁾ “보은상생은 사람의

34)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 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교법1-2)

35) 『論語』雍也, 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36) 대순진리회 교무부, 앞의 책, 67쪽.

도리로서 대의(大義)가 되며 대도(大道)가 된다”고 하였다.³⁷⁾

은의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으로써 남을 잘되게 하는 보은 상생은 자기 도리의 실천이다. 이는 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천지자연과神明계까지 확장된다. 인간은 모든 존재로부터 은혜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를 둘러싼 모든 생명체들로 인해 나란 존재가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존재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보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보은상생의 생명윤리인 것이다.

IV. 대순진리회 생명윤리교육으로서의 훈회

생명윤리교육은 ‘인성교육’이다. 생명의 존엄은 인간다움의 본질과 가치에 관한 바른 이해와 인식에 직결된다. 더구나 존엄의 가치는 생명의 윤리적 가치를 말하는 기초인 동시에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보여주는 핵심이다.³⁸⁾ 그래서 생명윤리교육은 인성교육이어야 한다. 생명윤리교육과 인성교육의 목적이 서로 상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윤리교육은 생명윤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단순히 찬반을 논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생명존중에 대한 가치관과 책임의 윤리에 대한 교육이어야 한다.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전문 직업인이든 그렇지 않은 일반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전문 직업인은 직업인으로써 교양인은 교양인으로써 바른 가치관과 책임의식을 지닌 한 사람의 시민이자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윤리를 ‘된 사람’이 되기 위한 인성교육과 연결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생명은 신성한 것이며, 조상신과의 관계맺음 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천지의 대덕이 만들어낸 지고지순한 것으로 천지만물 모두에 존재하는 신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해원상생·보은상생이 대순진리회의 생명윤리였음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생명과 생명존중의 책임윤리를 통해 ‘된 사람’이 되기 위한 세부적 실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필자는 대순진리회의 훈회를 통해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생명윤리의 실천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훈회는 대순진리를 수행하는 수도인들이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덕목으로 강조되며, 여기에는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대 진리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훈회는 다섯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다.

37)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3호.

38) 문시영, 『생명윤리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하나의 自省的 提案』, 『생명윤리』제10권 제2호(서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9) 14쪽.

1. 마음을 속이지 말라.

마음은 일신의 주인이며 사람의 모든 언행은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³⁹⁾ 그 마음은 양심(良心)과 사심(私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요, 사심은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이다. 원래 인성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감행하게 되니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을 되찾기에 전념하여야 한다.⁴⁰⁾ 몸은 내면적 심리상태인 마음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짓는 죄악의 근원지는 마음을 속이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 마음을 속이는 까닭은 그 마음 속에 반드시 집착과 사사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自暴自棄)”⁴¹⁾인 만큼, 정직과 진실로써 모든 죄악을 근절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을 속이지 않아야 양심인 천성을 되찾을 수 있고, 천성을 되찾아야 나의 마음을 참되게 할 수 있고, 곧 남의 마음도 참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⁴²⁾

생명윤리의 문제에서 양심을 지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의 추구에 관심을 갖는 존재이다.⁴³⁾ 그러므로 의학 관련 거대기업이라든지 신약관련 다국적 기업의 경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정의를 왜곡시킬 가능성을 농후하다. 또한 의료관련 전문직 종사자는 관련업체의 로비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을 속이고 정의롭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일반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다수의 선택이 옳지 않음에도 다수의 눈을 의식해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뒤로 하고) 다수가 바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마음을 속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 발생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시 마음을 속여야만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과 사심사이의 갈등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성찰과 함께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일상적인 수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언덕을 잘 가지라.

사람의 일상은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언어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자아 간에 소통을 이루려는 매개이다.⁴⁴⁾ 소통은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마음과 상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소리인 바, 말을 좋게 하여 덕이 되게 하여야 한

39)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경기포천: 대진대학교출판부, 1998), 228쪽.

40)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5), 19쪽.

41)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42쪽.

42) 위의 책, 70쪽.

43) 윤원근, 『동감의 사회학』(서울: 문예출판사, 2002), 421쪽.

44) 정진홍, 『경험과 기억』(서울: 당대, 2003), 241쪽.

다.”⁴⁵⁾는 것이다.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교법1-11)라고 한 증산의 언설은 언덕을 잘 가져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말과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위안해주기도 하고,⁴⁶⁾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⁴⁷⁾ 그러므로 언덕을 잘 가진다는 것은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생명윤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논란이 되는 배아나 태아에 대한 존재론적 지위, 뇌사와 안락사의 대상에 대한 생명연장치료, 임신중절이나 인공수정 등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은 복잡다단하다. 따라서 기존의 윤리원칙들을 철칙으로 해서 재단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의료인이나 윤리교육자들도 과거에 비하면 올바른 판단을 위한 개별 사안에 대한 해석능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⁴⁸⁾ 생명과 질병에 있어서 인간은 과학적 설명 못지않게 이해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의사나 환자의 기록이 생명과 질병 현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글로 된 “텍스트를 읽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생명현상은 개인의 삶에서 그만의 고유한 의미를 갖고 해석되어질 텍스트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의 텍스트로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료 영역에서는 환자가 텍스트로서의 대상이 된다.⁴⁹⁾ 그런 의미에서 환자와 의료인간에 진정한 내러티브의 소통은 환자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통의 과정은 끊임없이 타인과 교류하고 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부족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상호 간의 배움은 가능하다.⁵⁰⁾ 그러므로 생명윤리교육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제된 대화의 기술일 것이다. 언어는 누구나 공유하는 일정한 기호⁵¹⁾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행위가 될 수 있으며,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

45)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46쪽.

46) 「나의 말이 곧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충언이 역이로되 이어행(忠言逆耳利於行)이라. 나는 허망한 말을 아니하나니 내 말을 믿으라」 하셨도다.(교법2-1)

47)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지니고 있으니 되 생각하고 말하라.”(대순진리회교무부, 앞의 책, 78쪽)

48) 김대균, 앞의 글, 33쪽.

49) 위의 글, 39-41쪽.

50) 이윤미, 『현대신유가를 통해 바라본 현대 유교』, 『2014년 춘계한국종교학대회 자료집』(서울: 한국종교학회, 2014), 64쪽.

51) 정진홍, 앞의 책, 241쪽.

이 가득한 진심어린 언어의 사용은 인간성을 완성시켜주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장제거 무비초 호취간래 총시화(惡將除去無非草 好取看來總是花)라”(교법1-11)하였다. 나쁜 것이라 하여 제거하려면 풀이 아닌 것이 없고, 좋은 것이라 취하려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말의 덕을 배운다면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소통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질적인 경계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⁵²⁾

3. 척을 짓지 말라.

척(慼)은 나에 대한 남의 원한이니, 곧 남으로 하여금 나에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⁵³⁾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남의 호의(好意)를 거스리는 것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인 즉, 항상 남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으로 척을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교법2-44)라는 증산의 언설을 통해 척이라는 것은 인간 상호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신명, 인간과 자연물에 까지 작용할 수 있는 것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의 하나로 환경을 들 수 있다.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삶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오염, 생태계 위기의 문제 등은 생명윤리에서 다루어야만 하는 영역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척의 발생은 부지불식간에 행한 일에 대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어찌 보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무분별한 자연파괴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의 위기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된 자연의 척들로 인해 인간 생명의 위기로 까지 연결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차량의 바퀴에 깔리게 되는 개미 등에도 생명을 훼손할까 전전긍긍하자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인식의 전환’을 꾀해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적어도 더 이상의 난개발과 더 이상의 자연파괴로 인한 생태계의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순지침』에 “내 경위만 옳고 남의 주장은 무시하는데서 반발을 일으켜 미워하다가 마침내 원한을 품어 척을 맺는 법이다”⁵⁴⁾라고 하였다. 척은 계속적으로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으며, 전이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거듭된 악순환은 척의 증폭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52) 박원재, 『장자, 죽음은 삶과 평등하다』, 정동호 외, 『철학, 죽음을 말하다』(서울: 산해, 2005), 293-294쪽.

53)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5), 19쪽.

54)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27쪽.

러므로 척을 풀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가해자를 은인과 같이 생각하고 잘 대접해야 한다. 척을 맺는 것도 그리고 척을 푸는 것도 인간 개개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⁵⁵⁾

4.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은혜라 함은 나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이요, 저버림이라 함은 잊고 배반(背反)함이니, 은혜를 받거든 반드시 갚아야 한다. 생과 수명과 복록은 천지의 은혜이니 성·경·신으로써 천지 보은의 대의(大義)를 세워 인도(人道)를 다하고, 보명(保命)과 안주(安住)는 국가 사회의 은혜이니 헌신 봉사의 충성으로써 사회발전과 공동복리를 도모하며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출생과 양육은 부모의 은혜이니 숭선보본(崇先報本)의 대의로 효도를 다하고, 교도 육성은 스승의 은혜이니 봉교 포덕으로써 제도(弟道)를 다하고, 생활과 노작은 직업의 은혜이니 충실과 근면으로써 직분을 다하라.⁵⁶⁾는 말로써 보은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다. 은의를 알고 그 은의에 보은하여야 하며 배은망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⁵⁷⁾

천지의 은혜, 국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직업의 은혜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천지의 은혜이다. 정확히 말해서 천지간에 존재하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은혜이다. 인간을 둘러싼 모든 자연물은 그 자체가 보은해야 할 대상이다. 바람이 그렇고, 물이 그렇고, 불이 그렇고, 땅이 그렇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다. 물론 물질적인 어떤 보답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각각의 존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님으로써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대해 생명존중의 마음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에는 생명과 관련해서 신(神)에 주목한 대순사상의 생명관과도 연결된다. 모든 것에 신이 존재한다는 종교심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여기게 되어 자연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상생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사람만을 아끼고 사람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현대의 생명윤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유치한 인간만이 그럴 수 있는 비윤리적 태도의 전형이다.”⁵⁸⁾라는 정진홍의 표현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 남을 잘되게 하라.

남을 잘 되게 함은 상생대도의 기본원리이며 구제창생의 근본이념이다. 남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성사에는 타인과의 힘을 합하여야 된다는 정신을 가져 협동생활에

55) 천지 종용지사(天地從容之事)도 자아유지(自我由之)하고 천지 분란지사(天地紛亂之事)도 자아유지하니 공명지 정대(孔明之正大)와 자방지 종용(子房之從容)을 본 받으라.(교범3-29)

56)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5), 20쪽.

57)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67쪽.

58) 정진홍, 앞의 글, 10쪽.

일치협력이 되게 하라⁵⁹⁾ 하였다. “우리 일은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교법1-2), 남을 잘되게 하고자 하는 진심된 마음을 지니면 복이 먼저 오게 되는 것⁶⁰⁾ 통해 해원상생·보은상생 법리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겨워하는 것을 보면 측은한 마음을 지니며, 이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이럴 경우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일이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한 후, 우리는 뿌듯한 감정, 즉 행복감을 느낀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결코 잘 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사회는 여전히 나 혼자 잘 되는 것에 목말라 한다. 나 혼자 잘 되려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며, 혼자만의 성공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성공에 대한 현대인의 상태를 ‘쾌락주의의 역설’이라는 표현이 잘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래서 잘되게 한다는 것은 분명 가슴 뛰는 일이다. 개개의 생명윤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무조건적인 원칙론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내러티브적 접근을 통해 상대의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이해하고 배려해서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 또한 남을 잘 되게 하는 일이다. 즉 남을 잘 되게 하려는 마음자세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상호간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다 많이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 것도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남이라는 범주자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훈회는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대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 훈회는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신뢰할 것이고, 언덕을 잘 가지므로 화목할 것이며, 척을 짓지 않는 데서 시비가 끊어질 것이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데서 배은망덕이 없을 것이며,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 이것이 인존사상이며 평화사상이다.⁶¹⁾ 훈회는 단순히 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훈회는 규범의 준수를 통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규범의 준수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규범준수를 통한 존재의 형성은 내면의 성찰을 근거한 수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된 사람’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로, 규범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도덕성을 근거로 내면을 성찰하며, 이를 통한 수행으로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59)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5), 20-21쪽.

60) 眞心堅守 福先來(교법2-3).

61)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43쪽.

V. 결론

생명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인간, 자연, 신적 존재들은 생명체다. 그러므로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 모두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은 지양되어야 하며, 대신 그 자리를 ‘생명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가치론적 지향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생명은 무엇인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심 함양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명은 그냥 ‘생명있음’이다. 그것이 ‘숨쉬는 것’으로 표현되든, 그냥 ‘모든 것’으로 표현되든, 아니면 ‘신적 존재’로 표현되든, 단지 하나의 의미로 규정지을 수 없을 뿐 누구나다 ‘생명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신비로운 것인지도 모른다. 신비로운 것을 굳이 과학으로 재단하지 말고 그냥 신비로운 것을 잘 보호하면 되는 것이다.

생명이 ‘생명있음’이라면, 생명윤리의 궁극적 목적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하는 일, 생명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옹호하는 문화를 건설하는 일, 생명의 가치를 재천명하고 책임의식을 확산하는 일일 것이다.⁶²⁾ 그러므로 생명윤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생명윤리논쟁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이 지속되는 한 끊이지 않고 제기될 문제이다. 그러므로 생명윤리교육은 단순히 각각의 이슈들에 대한 찬반 논쟁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논쟁이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찬반을 묻고 찬반의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생명에 대한 이해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성찰 없이 이루어지는 찬반토론은 흥미위주의 것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윤리교육은 각각의 이슈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길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어야만 한다. 종교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교는 생명에 우선가치를 둔다. 다른 어느 단체, 어느 분야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생각한다. 그래서 환경파괴 등 생명권침해 행위가 있을 때마다 각 종단은 해당 종단의 교리에 입각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진다. 생명윤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종단의 교리를 근거로 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생명윤리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하여 생명존중이라든지 생명의 존엄성 등을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 타 종단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우선가치에 두고 있음은 분명하다. 아무튼 종교에서의 생명은 그냥 ‘생

62) 양재섭 · 구미정, 앞의 글, 2쪽.

명있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생명존중의식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인성에서 비롯된다. 종교에서 지향하는 바도 종교심 배양을 통한 올바른 인성 함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개별적 생명윤리논쟁에 대한 종교교육의 방법론을 논의하는 것 보다 올바른 인격체로 거듭나기 위한 종교심 함양의 방법을 대순진리회의 훈회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훈회는 대순진리회의 양대 진리인 해원상생·보은상생의 함축된 진리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덕목이기 때문이다. 훈회의 실천을 통해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종교심을 함양하여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닌 인격적 완성을 이룬 한 사람의 시민이자 '된 사람'을 지향하고자 한 것이다.

가족관계의 변화와 입시위주의 교육은 '인성교육의 부재'라는 폐단을 불러왔다. 입시위주로 치닫는 교육현실 속에서 등장하는 학교폭력과 교실붕괴는 인성교육의 부재를 실감하게 하며, 앞으로의 교육에서도 인성관련 교육의 부재를 예견하게 한다. 그러므로 종교교육, 학교교육을 떠나 그동안 등한시 되었던, 어찌 보면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전제했던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성교육은 밥상머리교육이다'라고 전제하여도 전혀 무리가 없을 듯하다. 생명존중과 생명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명윤리가 문제시 되는 것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연장의 꿈 이면에 도사리고 생명존엄성의 침해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 때문이다. "어떻게 개념규정이 되더라도 '생명윤리'는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시대는 자신의 '현대사회'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 당대는 상상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위기의 시대였다. 그 때도 그 현대사회는 우리가 직면한 '생명윤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새삼 생명윤리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새롭고 낯선 문제라는 인식자체부터 우리는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될 런지도 모른다."⁶³⁾는 정진홍의 글은 많은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63) 정진홍, 앞의 글, 20쪽.

참고문헌

『論語』.

『易經』.

『전경』.

권복규 · 김현철, 『생명윤리와 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권윤희,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제23권 제2호, 서울: 한국간호보건학회, 2009.

김대균, 「생명윤리교육에서 내러티브 활용」, 『윤리교육연구』 제27집, 서울: 한국윤리교육학회, 2012.

김인순, 「생명윤리교육이 간호보건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생명윤리』제14권 제1호, 서울: 한국생명윤리학회, 2013.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경기포천: 대진대학교출판부, 199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5.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3호,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5.

문시영, 「생명윤리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하나의 自省的 提案」, 『생명윤리』제10권 제2호, 서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9.

민영현, 「한국 근세민중종교사상에서의 생명 이해와 선(仙)」, 『한국정신과학학회 제28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정신과학학회, 2008.

박원재, 「장자, 죽음은 삶과 평등하다」, 정동호 외, 『철학, 죽음을 말하다』, 서울: 산해, 2005.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양재섭 · 구미정,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생명윤리교육 : 대구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생명윤리학회지』제10권 제1호, 서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9.

유명숙 · 손기철,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및 도덕 판단력에 관한 간호윤리교육의 효과」, 『생명윤리』제12권 제2호, 서울: 한국생명윤리학회, 2011.

윤원근, 『동감의 사회학』, 서울: 문예출판사, 2002.

윤재근, 「한국 신종교 개창자의 탄생설화와 종교문화」, 『종교교육연구』3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이윤미, 「현대신유가를 통해 바라본 현대 유교」, 『2014년 춘계한국종교학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14.

장성익 글/ 박종호 그림, 『생명윤리논쟁』, 서울: 풀빛, 2014.

전현숙, 「간호대학생과 비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기본간호학회지』제18권 제3호, 서울: 한국간호과학회 기본간호학회, 2011.

정진홍, 「생명과 종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3집,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정진홍, 『경험과 기억』, 서울: 당대, 2003.

정하운 · 정귀임, 「간호대학 신입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학회지』제

- 6권 제4호, 서울: 보건의료산업학회, 2012.
- 조미경, 「간호과와 비간호과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비교」,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서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 조웅태, 「한국 신종교의 생명문화」, 『신종교연구』 25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1.
- 최경석, 「생명윤리와 철학 : 철학적 대립과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한 철학적 과제」, 『생명윤리』 제14권 제2호, 서울: 한국생명윤리학회, 2013.
- 최경석,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 - 다원주의 사회에서 학제적 생명윤리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미래」, 『법학논집』 제17권 제1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최경석, 「생명윤리에서 윤리적 허용가능성 담론과 법제화」, 『법철학연구』 제15권 제1호, 서울: 한국법철학회, 2012.
- Louis P. Pojman & James Fieser, *Ethics : Discovering Right and Wrong*, 박찬구, 류지한, 조현아, 김상돈, 『윤리학:옳고 그름의 발견』, 서울: 울력, 2010.
- Malory Nye, *Religion: the basics*, 유기쁨, 『문화로 본 종교학』, 서울: 논형, 2013.
- Robert L. Arrington, *Western Ethics*, 김성호 역, 『서양윤리학사』, 서울: 서광사, 2007.

원고접수일: 2014년 5월 19일 심사일: 2014년 7월 1일 게재확정일: 2014년 7월 14일

연구자소개: 김영주

① 전공: 한국신종교, 한국철학 / 소속 :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② 관심영역: 한국신종교, 종교교육, 한국철학

③ 주요논저: 「증산 강일순의 신선사상」, 「다산 공부론에 있어서 주체성 확보문제」,
「증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 해석의 문제」,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등.

④ E-mail: eureka0710@daejin.ac.kr

Abstract

Bioethics and Religious education on Daesoonjinrihoi

Kim, YeongJoo

Daejin University

As long as life exists and life science and medical technology develops, Bioethic is continuously debatable issue. Because of this, Hwang Woo Suk situation happened in 2005 had a role to remind all the people to find out the problem with Bioethics.

Although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technology achieved lots of medical result such as life extension and health improvement, there is double-sidedness that can occur social ethical problems which are euthanasia, cloning, genetic testing that can violate dignity of life. Due to this, there is a constant debate in individual bioethical problem whether these actions are ethically right or not. Bioethical education should not be a mere pros and cons debate about each issue. Without understanding life and introspect of life dignity can lead the debate only into interest.

This paper is based on the result that religious belief life improves bioethical life and we are trying to find out the responsibility of life and the need of education of bioethical from education of religion on Daesoonjinrihoi. The problem of bioethic is the humanity which is based on the religious spirit.

As well as other religious, in Daesoonjinrihoi first priority is the value of life. Thus, this research paper is trying to explore bioethic of Haewonsangseng(Co-existence through Resolution of Grievances), Boeunsangseng(Co-existence through of Faver returning), based on understanding of life in Daesoonjinrihoi. Moreover, through Hunhoi(the code of conduct) which is practical ethic of daily human life we are trying to debate about the issue of cultivation of character based on religious spirit.

Key words: Bioethics, Haewonsangseng, Boeunsangseng, Hunhoi